廣愛歌

[해제]

<광애가(廣愛歌)>는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은 책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을 모아 놓은 가사집이다. 이 책에는 <광애가(廣愛歌)>를 비롯하여, <경명가>, <거상제향가>, <경장가>, <근부가>, <사친가> 등 총 28편의 교훈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사랑하는 바를 자식 역시 사랑하고, 그분들이 공경하는 바를 자식 또한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뜻을 받들어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맏며느리(冢婦)와 작은며느리(介婦)가 명심해야만 하는 올바른 행동거지와, 종가(宗家)를 방문할 때 지켜야할 예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소학(小學)』의 「명륜제이(明倫第二」편 중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익숙한 『소학(小學)』의 경구를 가사체로 풀어내어서 <광애가(廣愛歌)>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만일親癌 들거시던 容色을 不盛홈이
이난孝子의 疏畧한 禮節이 되나니라
父沒하신 후에참아 父之書을 不讀홈은
手澤이 存焉이며 母沒하신 후에참아
杯圈을 不飮홈은 口澤之氣가 存焉인저
父母을 顯著케하난 至孝난 敬命코저

廣愛歌

廣愛하ᄉᆡ 廣愛하ᄉᆡ 道禮로 廣愛하새
父母ᄭᅦ서 婢子와 庶子와 庶孫을
甚이 愛之어시던 비록父母 업스사도
沒身토록 敬之하야 衰殘케 아니하고
子息이 二妾을두매 父母난一人을 愛之하고
子난一人을 愛之어던 衣服과 飮食과
執事홈 부터을 敢이父母의 所愛와
私愛와 視偏말라 비록父母 업스사도
衰殘케 아니하며 子息이 其妻을
甚이맛쌍이 여겨도 父母ᄭᅦ서 不悅커던
其妻을 出之하고 子息이 其妻을
맛쌍이 안여겨도 父母가 善事者라하시면
子息은 夫婦之禮을 行하야 沒身토록
衰殘케 아니하며 孝子의 養老홈은
親心을 可樂하며 親志을 不違하며

廣愛歌

그耳目을 怡聲과 柔色으로 可樂하며
寢處을 平安케하며 飮食으로 忠養하니
是故로 父母의 所愛을 愛之하며
父母의 所敬을敬之니 雖犬馬라도 盡然이온
而況於人乎아 不愛하며 不敬하면
吾父母을 慢忽이라 歲月이 如流하야
舅沒하면 姑老하니 冢婦난 祭祀이며
介婦난 冢婦께請하며 舅姑께서 冢婦을
使之어던 毋怠하며 介婦의게 無禮이못하며
舅姑께서 介婦을 使之어던 介婦난
冢婦와 敵耦못하니 敢이並行치 못하며
敢이並命치 못하며 敢이並坐치 못하고
諸婦난 舅姑께서 私房가라 不命어던
敢이물너나지 못하며 將次私事 잇심에
大事小事之間에 舅姑께 請하며
陰隱하야 專制하면 舅姑前에 不孝로다
諸適子와 諸庶子난 宗子와 宗婦을
恭敬하야 事之호듸 비록 冨貴을하나
敢이 冨貴로써 宗子之家에 不入할식
비록 衆車徒라도 박에다 置舍하고
寡約홈으로 入하며 敢이 冨貴로써
父兄과 宗族의게 이에더하지 못하네
廣愛歌을 부른사람 廣愛之心 업단말가

五.諫過歌
天下萬國 卑者더라 諫過歌을 불너보자
父母께서 愛之어시던 喜樂하야 不忘하며
父母께서 惡之어시던 懼하야 無怨하며
父母께서 有過어시던 氣運을 나작이 하며
顔色을 和悅이하야 音聲을 柔和이하며
諫過호듸 不逆하고 만일諫홈이 不入어던
恭敬을 極盡이더하며 孝誠을 極盡이더하야
和悅하시던 復諫하며 父母不悅 하사도
鄕黨에 得罪하게되거던 차라리 孰諫호듸
父母怒하야 不悅하사 撻之流血 될지라도
疾惡하야 怨嘆말며 起敬하며 起孝하야
三諫호듸 不聽어시던 號泣하야 隨之하면
神仙도 感嘆커던 父母感心 업단말가

[현대역]

만일 부모님께서 병이 드시면 용색(容色)36을 펴지 않음이
이것이 효자(孝子)의 소략(疏畧)한 예절(禮節)이 되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차마 아버지의 책을 읽지 못함은
수택(手澤)37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차마
배권(杯圈)38을 사용하여 마시지 아니함은 구택지기(口澤之氣)39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모(父母)님을 현저(顯著)40하게 하는 지극한 효(孝)는 경명(敬命)41이라

광애가(廣愛歌)

광애(廣愛)1하세 광애(廣愛)하세 도(道)와 예(禮)로 광애(廣愛)하세
부모(父母)님께서 비자(婢子)2와 서자(庶子)3와 서손(庶孫)4을
심(甚)히 사랑하시거든 비록 부모(父母)님이 없으셔도
몰신(沒身)5토록 공경하여 쇠잔(衰殘)6하게 아니하고
자식(子息)이 두 첩(妾)을 둠에 부모(父母)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은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
집안일부터 감(敢)히 부모(父母)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편(視偏)7하지 말라 비록 부모(父母)님이 없으셔도
쇠잔(衰殘)8하게 아니하며 자식(子息)이 그 처(妻)를
심(甚)히 마땅히 여겨도 부모(父母)께서 기뻐하지 아니 하시면
그 처(妻)를 내보내고 자식(子息)이 그 처(妻)를
마땅히 여기지 않아도 부모(父母)가 선사자(善事者)9라 하시면
자식(子息)은 부부(夫婦)의 예(禮)를 행하여 죽을 때까지
쇠잔(衰殘)하게 아니하며 효자(孝子)의 양로(養老)10함은
친심(親心)11을 가히 즐겁게 해 드리며 친지(親志)12를 어기지 않으며
그 귀와 눈을 이성(怡聲)13과 유색(柔色)14으로 가히 즐겁게 하며
침처(寢處)15을 편안케 해 드리며 음식(飮食)으로 충양(忠養)16하니
이런 까닭으로 부모(父母)가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며
부모(父母)가 공경하시는 바를 공경하니 비록 개와 말이라도 진연(盡然)17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나의 부모(父母)를 만홀(慢忽)18하는 것이라 세월(歲月)이 여류(如流)19하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도 늙으시니 총부(冢婦)20는 제사(祭祀)를 지내며
개부(介婦)21는 총부(冢婦)께 청(請)하며 구고(舅姑)22께서 총부(冢婦)를
시키시거든 무태(毋怠)23하며 개부(介婦)에게24 무례(無禮)하게 못하게
구고(舅姑)께서 개부(介婦)를 시키시거든 개부(介婦)는
총부(冢婦)와 적우(敵耦)25하지 못하니 감히 병행(並行)26치 못하며
감히 병명(並命)27치 못하며 감히 병좌(並坐)28치 못하고
모든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서 사방(私房)29에 가라 명령하지 않으시면

감히 물러나지 못하며 장차(將次) 사사(私事)30가 있으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시부모님께 청(請)하며
음은(陰隱)31하여 전제(專制)32하면 시부모님 앞에 불효(不孝)로다
모든 적자(適子)33와 모든 서자(庶子)34는 종자(宗子)35와 종부(宗婦)36를
공경(恭敬)하여 일을 하되 비록 부귀(冨貴)할지라도
감히 부귀(冨貴)한 자세로써 종자(宗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비록 중차도(衆車徒)37라도 밖에다 남겨두고
과약(寡約)38한 상태로 들어가며 감히 부귀(冨貴)로써
부형(父兄)과 종가 친척들에게 이에 더하지 못하네 광애가(廣愛歌)를 부른 사람 광애지심(廣愛之心)39
없단 말인가

五. 동과가(諫過歌)
천하만국(天下萬國) 비자(卑者)들아 동과가(諫過歌)1를 불러보자
부모(父母)께서 사랑하시든 희락(喜樂)2하여 불망(不忘)하며
부모(父母)께서 오지(惡之)3 하시거든 두려워하여 무원(無怨)하며
부모(父母)께서 유과(有過)4이시든 기운(氣運)을 나직이 하며
안색(顔色)을 화열(和悅)5이 하여 음성(音聲)을 유화(柔和)6롭게 하며
동과(諫過)하되 불역(不逆)7하고 만일 동(諫)함이 불입(不入)이어든
공경(恭敬)을 극진(極盡)히 더하며 효성(孝誠)을 극진(極盡)히 더하여
화열(和悅) 하시든 부간(復諫)8하며 부모불열(父母不悅)9하셔도
향당(鄕黨)에 득죄(得罪)하게 되거든 차라리 숙간(孰諫)하되10
부모(父母) 노(怒)하여 불열(不悅)하사 달지유혈(撻之流血11) 될지라도
질악(疾惡)12하여 원탄(怨嘆)13말며 기경(起敬)14하며 기효(起孝)15하여
삼간(三諫)16하되 불청(不聽)하시거든 호읍(號泣)17하여 수지(隨之)18하면
신선(神仙)도 감탄(感嘆)하거든 부모감심(父母感心)19 없단 말인가

[각주]

36) 용색(容色) : 용모와 안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37) 수택(手澤) : ①손이 자주 닿았던 물건에 손때가 묻어서 생기는 윤기. ②물건에 남아 있는 옛사람의 흔적.

38) 배권(杯圈) : 잔과 그릇.

39) 구택지기(口澤之氣) : 입김.

40) 현저(顯著) : 뚜렷이 드러남.

41) 경명(敬命) : 명령을 삼가 공경함.

1) 광애(廣愛) : 넓은 사랑. 폭넓고 포용력 있는 사랑.

2) 비자(婢子) : 계집종. 또는 계집종의 몸에서 난 아들.

3) 서자(庶子) : 첩의 몸에서 난 아들.

4) 서손(庶孫) : 서자(庶子)의 아들. 또는 적자의 소실이 낳은 아들.

5) 몰신(沒身) :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 또는 일생을 마침.

6) 쇠잔(衰殘) :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7) 시편(視偏) : 편향되게 바라봄. 또는 한쪽 편에 치우쳐서 비교함.

8) 쇠잔(衰殘) :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9) 선사자(善事者) :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는 일을 잘 하는 사람.

10) 양로(養老) : 늙으신 부모를 봉양함.

11) 친심(親心) : 부모님의 마음.

12) 친지(親志) : 부모님의 뜻.

13) 이성(怡聲) : 기쁜 목소리. 또는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

14) 유색(柔色) : 부드러운 얼굴빛.

15) 침처(寢處) : 잠자리와 거처하는 곳.

16) 충양(忠養) : 진심과 정성을 다해 봉양함.

17) 진연(盡然) : 모두 다 그렇게 함.

18) 만홀(慢忽) : 업신여기고 소홀히 대함.

19) 여류(如流) : 흐르는 물과 같음. 세월이 매우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총부(冢婦) : 맏며느리, 즉 정실(正室) 맏아들의 아내. 또는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21) 개부(介婦) : 작은 며느리.

22) 구고(舅姑) : 시부모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23) 무태(毋怠) : 게을리하지 아니함.

24) 개부(介婦) : 작은 며느리.

25) 적우(敵耦) : 서로 엇비슷하여 대등하게 맞섬.

26) 병행(並行) : 어깨를 나란히 감.

27) 병명(並命) : 나란히 서서 명령을 받음.

28) 병좌(並坐) : 나란히 앉음.

29) 사방(私房) : 개인의 방. 자신의 방.

30) 사사(私事) :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일.

31) 음은(陰隱) : 드러내지 않고 숨김.
32) 전제(專制) : 다른 사람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일을 결정함.
33) 적자(適子) : 정실(正室)이 낳은 아들. '적자(嫡子)'와 같음.
34) 서자(庶子) : 첩의 몸에서 난 아들.
35) 종자(宗子) : 종가(宗家)의 맏아들.
36) 종부(宗婦) :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이름.
37) 중차도(衆車徒) : 거느린 수레와 무리가 많음.
38) 과약(寡約) : 적고 간략함.
39) 광애지심(廣愛之心) : 넓게 사랑하는 마음. 폭넓고 포용력 있게 사랑하는 마음.
1) 동과가(諫過歌) : 허물을 말하는 노래.
2) 희락(喜樂) : 기뻐하고 즐거워함.
3) 오지(惡之) : 미워함.
4) 유과(有過) : 허물이 있음.
5) 화열(和悅) : 화평하여 기쁨.
6) 유화(柔和) : 부드럽고 온화함.
7) 불역(不逆) : 거스르지 않음.
8) 부간(復諫) : 다시 간하다.
9) 부모불열(父母不悅) : 부모가 기뻐하지 않음.
10) 숙간(孰諫)하되 : 누군가 간하되.
11) 달지유혈(撻之流血) : 종아리를 쳐서 피가 흐름.
12) 질악(疾惡) : 병듦.
13) 원탄(怨嘆) : 원망하며 탄식함.
14) 기경(起敬) :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남.
15) 기효(起孝) : 효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남.
16) 삼간(三諫) : 세 번 간함.
17) 호읍(號泣) :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울.
18) 수지(隨之) : 따라감.
19) 부모감심(父母感心) : 부모가 감동하는 마음.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